

여고생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명희 · 공수자 · 김창숙 · 김란 · 김영재 · 박인순 · 정순아¹*

조선간호대학 간호과 · 서강정보대학 간호과¹

Factors influencing hop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yung-hee Park · Su-ja Gong · Chang-sook Kim · Ran Kim · Young-jae Kim ·

In-soon Park · Soon-ah Chung¹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Nursing College

¹*Department of Nursing, Seok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hop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07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selected from 2 schools located at Province J.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2 to 24 in 2009, by self report questionnaire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Dunca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13.0 program.

Hop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differed by economic state and school record. Hop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positively correlated to task difficulty preference, self-regulatory efficacy, self-confidence, teacher support and peer support. Self-regulatory efficacy, peer support and self-confidence accounted for 34.7% of hop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showed that self-regulatory efficacy, peer support and self-confidence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 practical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increase hop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Self-regulatory efficacy, Self-confidence, Peer support, Hope

*Corresponding author E-mail: mh7365@paran.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생의 과도기로 신체적 급성장과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¹⁾ 새로운 도전을 받으며 여러 가지 위기를 맞는 시기이다²⁾. 더욱이 오늘날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 학습 조건,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가정에서의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³⁾,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이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우울, 자살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고⁵⁾, 약물 남용, 가출, 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²⁾. 특히 우울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서 발병률이 높으며⁵⁾, 청소년들 중에서도 인문계 여고생은 가장 높은 자살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

이와 같은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 행위는 희망의 부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여러 문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⁶⁾, 희망의 본질은 타인의 도움, 지지, 개인적 신념 및 종교 등이 그 원천이 된다⁷⁾. Travelbee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정서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간호의 목표를 희망을 유지하고 절망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희망은 삶 그 자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안녕을 위한 구성요소이며⁹⁾, 삶의 활력소로서 적응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⁷⁾ 고대 그리스 이래 희망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¹⁰⁾. 즉,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스트레

스 관리에 적극적이며, 어려운 문제상황을 해결해 나가며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며¹¹⁾, 희망은 학업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¹²⁾, 학업성취, 심리적 적응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¹³⁾, 희망이 높은 경우에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기 때문에¹⁴⁾, 희망은 전인간호를 위한 핵심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¹⁵⁾.

이와 같이 희망은 청소년에게 있어 변화에 적응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으로 청소년의 삶을 지탱시켜 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²⁾, 희망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변인이며¹⁾, 청소년들이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¹⁾ 간호 중재전략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보면 주로 희망과 정신 건강과의 상관관계¹⁶⁾, 영적 안녕과의 상관관계⁷⁾, 가족기능과의 상관관계²⁾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¹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¹⁴⁾, 희망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는¹²⁾ 아주 드물게 이루어졌다. 또한 선행 연구의 연구대상을 보면 주로 암환자,⁷⁾⁹⁾¹⁶⁾ 노숙자¹⁷⁾, 정신 분열증 환자 가족¹⁸⁾등이 많았으나, 근래에 들어 청소년 대상 연구¹⁹⁾²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로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여고생의 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문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봄으로써, 여고생의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의 희망에 영향

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희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한 2개 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희망을 조사하고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에 소재한 2개 여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지에 응답이 가능한 30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배부된 설문지는 총 300부였으나,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 있는 것, 중복 체크 또는 애매모호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90부를 제외한 210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이상치가 있었던 3부를 제외하고 최종 207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28문항, 사회적 지지 14문항, 희망 18문항, 일반적 특성 3문항으로 총 6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1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 등²¹⁾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 AS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점 Likert 척도로, 긍정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 점수를 주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구성은 과제난이선호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별 문항 수는 과제난이선호도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개발 당시 과제난이선호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7이었으며 자기조절 효능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4, 자신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79이었다. 본 연구에서 과제난이선호도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0, 자기조절효능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6, 자신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3이었다.

3.2 사회적 지지(교사, 친구)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Hernandez²²⁾가 개발한 학업관련 사회적 지지 도구를 기초로 박²³⁾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4 점까지 점수를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 구성은 교사지지와 친구지지 각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박²³⁾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지지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5이었으며, 친구지지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8이었고 친구지지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값 .85이었다.

3.3 희망

본 연구에서 희망은 Snyder 등²⁴⁾이 개발한 특성 희망 척도 12문항과 Snyder 등²⁵⁾이 개발한 상태희망 척도 6문항을 강²⁶⁾이 번역한 것을 기초로 김¹⁹⁾이 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8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8점까지 점수를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구성은 주도사고, 통로사고 각각 7문항과 중립 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립 문항 4문항은 채점에서 제외시켰다. 김¹⁹⁾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도사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78이었으며, 통로사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주도사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4, 통로사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85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4.1 사전 조사

사전 조사를 하기 전에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 1학년 3명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준 다음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도를 파악하여, 설문지 작성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사전 조사는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 8월 27일에 J도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30명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대상에 한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4.2 본 조사 및 자료 수집 과정

자료 수집은 2009년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자가 J도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3명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방법을 설명하고 비밀 보장에 대하여 약속한 다음,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대상 학생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 자기기입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6~10분 정도였다. 설문 조사가 끝난 후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색 볼펜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Dunc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와 희망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종교는 없는 경우가 50.2%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 분포는 중류층이 54.6%로 가장 많았다. 학교 성적은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7.5%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Religion	Yes	103(49.8)
	No	104(50.2)
Economic state	high	17(8.2)
	middle	113(54.6)
	low	77(37.2)
School record	high	35(16.9)
	middle	119(57.5)
	low	53(25.6)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의 연구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인 여고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61점(SD=.56)으로 중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여고생 20명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연구하였던 김²⁷⁾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평균이 3.26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 평균은 과제난이선호도는 3.30점(SD=.74), 자기조절효능감은 3.70점(SD=.68), 자신감은 3.86점(SD=.94)으로 나타나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제난이선호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김²⁷⁾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제 난이 선호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여고생들의

과제난이선호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인문계 여고생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보편적 특성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과 여고생을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인 여고생의 사회적지지는 4점 만점에 평균 3.0점(SD=.47)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중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중학생인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연구하였던 박²³⁾의 연구에서 대상자 평균이 2.96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볼 때,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수 평균을 보면 교사지지는 2.74점(SD=.66), 친구지지는 3.25점(SD=.51)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인 여고생들이 친구지지에 비하여 교사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에 비하여 교사지지는 표준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빈곤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연구하였던 박²³⁾의 연구에서도 교사지지는 2.81, 친구지지 3.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와 비슷하였다. 또한 박²³⁾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친구지지에 비하여 교사지지를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지내는 시간 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약물 남용 및 중도 탈락과 같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과 교사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상호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관

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인 여고생의 희망 점수는 8점 만점에서 평균 5.35점(SD=.93)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가 다르지만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을 연구한 우²⁾의 연구를 보면 4점 만점에서 평균 평점 2.78로 나타났으며, 입원한 암환자의 희망 관련 요인을 연구한 고 등¹⁶⁾의 연구에서도 4점 만점에서 평균 평점은 2.79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희망을 측정한 김¹⁹⁾의 연구에서는 평균 3.20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가 희망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인문계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희망을 높게 지각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 갈등과 방향이 많은 청소년기에 있는 여고생들에게 성공적인 심리적 적응을 위한 보호요인이 되

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희망의 하위 변수인 주도 사고는 평균 4.95점(SD=1.10), 통로 사고는 평균 5.75점(SD=.96)으로 나타나 통로사고가 더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희망을 측정한 김¹⁹⁾의 연구에서는 주도사고 3.24점, 통로 사고 3.13점으로 나타나 주도사고가 높게 나타났으나 반대로 본 연구 대상자는 통로 사고를 더 높게 나타냈다. 즉, 본 연구 대상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인 주도사고 보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통로사고²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목표를 추구하는 연쇄작용에서 통로사고는 주도사고를 증가시키기 때문에²⁴⁾ 성취해야 할 목표와 과업이 많은 여고생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석되며,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07)

Variables	M±SD	Possible range
Academic self efficacy	3.61±.56	1~6
Task difficulty preference	3.30±.74	1~6
Self-regulatory efficacy	3.70±.68	1~6
Self-confidence	3.86±.94	1~6
Social support	3.0 ±.47	1~4
Teacher support	2.74±.66	1~4
Peer support	3.25±.51	1~4
Hope	5.35±.93	1~8
Agency thinking	4.95±1.10	1~8
Pathway thinking	5.75± .96	1~8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의 차이를

보면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의 차이를 보면 종교 유. 무에 따른 희망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t=.675$, $p=.051$), 경제 상태($F=9.900$, $p<.001$)와 학교 성적($F=10.876$, $p<.001$)에 따라 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 대상자의 종교 유. 무에 따른 희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게 나타났다($t=.675$, $p=.501$). 이는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현 등¹⁾의 연구 결과에서도 종교 유. 무에 따라서 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한편, 암환자 대상으로 연구한 이 등⁹⁾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희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우 등²⁾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희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입원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 등¹⁶⁾의 연구결과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종교가 있는 경우 보다 희망이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제 상태에 따른 희망의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9.900$, $p<.001$). 즉, 집단간의 차이를 Duncan으로 사후 분석한 결과, 경제상태 “상”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희망을 높게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 상태 “상”, “중” 집단이 “하” 집단 보다 희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우 등²⁾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¹⁸⁾와도 일치하여, 경제 상태에 따라 여고생이 지각하는 희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교 성적에 따른 희망의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0.876$, $p<.001$). 집단간의 차이를 Duncan으로 사후 분석한 결과 학교 성적 “상” 집단이 “중”, “하” 집단 보다 희망을 높게 나타내었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상”, “중” 집단에서 “하” 집단보다 희망이 높게 나타난 우 등²⁾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주었다. 또한 학업 성취와 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¹⁾²⁸⁾를 지지하여주어, 학교 성적에 따라 여고생이 지각하는 희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Difference of hop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Variables	Hope			
	M±SD	t or F	p	Duncan
Religion				
Yes	5.40±.99	.675	.501	
No	5.30±.85			
Economic state				
high	6.24±.86	9.900	<.001	a > b, c.
middle	5.33±.94			
low	5.18±.80			
School record				
high	5.98±1.03	10.876	<.001	a > b, c.
middle	5.25±.77			
low	5.15±.99			

4.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r=.45$, $p<.01$)과, 사회적 지지($r=.38$, $p<.01$)는 희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희망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와 희망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과제난이선호도($r=.19, p<.01$), 자기조절효능감($r=.45, p<.01$), 자신감($r=.34, p<.01$)은 희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희망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하위 변수 중 자기 조절 효능감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인 교사지지($r=.21, p<.01$), 친구지지($r=.43, p<.01$)는 희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희망은 교사지지 보다 친구지지가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는 희망과의 상관관계에서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모든 연구 변수들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학생들의 희망 및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연구 결과²¹⁾²²⁾를 지지해 주었으며, 희망은 부모, 또래, 교사 등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아이들에게 고취된다는 연구 결과²⁹⁾를 지지해주었다. 한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³⁰⁾의 연구와 문³¹⁾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희망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결과를 지지해 주었으며, 청소년의 희망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호하다¹⁾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tudy variables (N=207)

	Hope
Academic efficacy	.45*
Task difficulty preference	.19*
Self-regulatory efficacy	.45*
Self-confidence	.34*
Social support	.38*
Teacher support	.21*
Peer support	.43*

* $p<.01$

5.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희망에 대한 독립 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 상태, 성적, 과제난이선호도,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교사지지 및 친구지지 등 7개 변수를 이용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자기조절효능감, 친구지지 및 자신감 세 개 변수가 희망을 3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수인 자기조절효능감에 의한 설명력이 20%를 차지하여 자기조절효능감이 여고생의 희망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조절 효능감, 친구지지 및 자신감은 여고생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고생의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전략에 자기조절 효능감, 친구지지 및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으나,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 보았다. 암환자의 희망 관련 요인을 분석한 고 등의¹⁶⁾ 연구에서 영적 안녕, 자존감, 경제상태에 의해서 54% 설명하였으며, 암환자의 희망 예측요인을 연구한 이 등⁹⁾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 건강상태지각, 사회적 지지, 연령 등 5개 변수가 54% 설명하였다. 이와같은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결과에서는 희망을 34.7% 만을 설명하였으므로 희망을 설명하는 예측력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등⁹⁾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암환자의 희망을 34.6% 설명하였다고 보고하였고, 고 등의¹⁶⁾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희망을 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희망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에 자신감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변수간의 유사한 개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을 연구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고찰 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변수를 포함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hope

(N=207)

Factor	B	β	t	Cum R ²	p	F(p)
Self-regulatory efficacy	.445	.332	5.619	.200	<.001	37.49(<.001)
Peer support	.573	.316	5.398	.312	<.001	
Self- confidence	.197	.202	3.434	.347	<.001	

오늘날 여고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 아닌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인문계 여고생들은 대학 진학이라는 긴장감과 경쟁의식 속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동료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서의 인간관계를 갖게 되므로³²⁾ 청소년들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²⁷⁾.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및 교우관계의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희망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²⁰⁾ 때문에, 여고생들에게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전략이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고생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연구대상자가 학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고생들의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할 때 자기조절효능감과 친구지지 및 자신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여고생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학업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일반적 특성 변인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자료 수집은 J도에 소개하고 있는 2개 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자기보고형 설문지로 되어있으며, 자료 수집은 2009년 9월부터 2일부터 9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 수는 207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t-test, one-way ANOVA, Dunca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여고생이 지각하는 희망은 5.35(SD=.9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희망의 차이를 보면 경제 상태(F=9.900, p<.001)와 학교 성적(F =10.87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과제난이도(r=.19, p<.01), 자기 조절효능감(r=.45, p<.01), 자신감(r=.34, p<.01) 및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인 교사지지(r=.21, p<.01), 친구지지(r=.43, p<.01) 모두 희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고생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효능감, 친구의 지지, 자신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여고생의 희망을 34.7%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고생의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할 때는 자기 조절 효능감, 친구지지, 자신감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한 측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여고생이 지각하는 희망을 측정하는데 한계성을 지녔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여고생이 지각하는 희망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 지역 2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성을 지녔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여고생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확률표본 추출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는 다르지만 선행 연구에서 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요인 또는 희망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다양한 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들이 고등학생임을 고려하여 문항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므로써 본 연구는 여고생의 희망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지녔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조선간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현미열, 이종은, 박선남: 청소년의 희망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16~123, 2003.
2. 우선혜, 노지영, 박영숙: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희망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 노인건강연구센터, 18(1), 47~58, 2005.
3. 김은희: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교-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2000.
4. 김정호, 이경숙(2000): 학업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43~59.
5. Beatrais, A.L.: Gender issues in youth suicidal behavior. *Emerg Med*, 14, 35~42, 2002.
6. Cutcliffe, J., & Herth, K. .: The concept of hope in nursing 2: Hope and mental health nursing. *The British Journal of Nursing*, 11(13), 885~893, 2002.
7. 유은주: 암환자의 Nurse Presence 영적 안녕 및 희망과의 관계. 대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대구, 2002.
8. Travelbee, J.: *Interpersonal aspects of nursing*. philadelphia: F.A. Davis Company, 1985.
9. 이화진, 손수경: 암환자의 희망 예측 요인, 성인간호학회지, 12(2), 184~195. 2000.
10. Groopman, J. E.: A strategy for hope: acommentory on necessary collusion. *j clin oncol*, 23(13), 3151~3152. 2005.
11. Snyder, C. R., & Feldman, D. B.: Hope for the many: An empowering social agenda. In C. R. Snyder(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 and applications(pp. 402~41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000.
12. Lackaye, T.: Comparisons of self-efficacy, mood, effort, and hope between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their non-LD-matched peers.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 Practice*, 21(2), 111~121, 2006.
 13. 장은영: 희망이 학업 성취, 학교 적응,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04.
 14. Barnum, D. D., Snyder, C. R., Rapoff, M. A., Mani, M. M., & Thompson, R.: Hope and social support i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pediatric burn survivors and matched control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the Care of Children's Health*, 27, 15~30, 1998.
 15. 송미순, 이은옥, 박영숙, 하양숙, 심영숙, 유수정: 희망의 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5), 1279~1291, 2000.
 16. 고성희, 이영희, 김현경 . 입원 암환자의 희망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5(4), 467~474, 2006.
 17. 김현미, 최연희: 실직 노숙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희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1), 171~181, 2002.
 18. 이종은, 현미열: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감, 자존감 및 희망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3), 268~278, 2003.
 19. 김택호: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2004
 20. 이희경: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 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9(3), 751~766, 2007.
 21. 김아영, 박인영: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6~123, 2001.
 22. Hernandez, L. P.: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t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California, USA, 1993.
 23. 박현선: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1998.
 24.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et al .: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1991.
 25. Snyder, C. R., Sympson, S. C., Y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21~335, 1996.
 26. 강이영: 상담과정 희망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2002
 27. 김미경: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춘천, 2008.
 28. Snyder, C. R., Lapointe, A. B., Crowson, J. J. Jr., & Early, S.: Preferences of high-hope 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 Emotion*, 12, 807~823, 1998.
 29. Snyder, C. R., Cheavens, J., & Sympson, S. C.: Hope: An individual motive for social commerc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2), 107~118, 1997.
 30. 임현자: 암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희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 학위 논문, 1992.
31. 문희: 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불편감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32. 박미영, 김은경: 여고생의 분노 및 대인 관계 위치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1), 7~16, 2002.